

정 보 화 사 회 광 장

전자공업진흥회 제20회 한국전자전 개최

제20회 한국전자전이 지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강남 KOEX전시장에서 한국·미국·일본·서독 등 15개국 520개사의 460여종 8만여점이 출품된 가운데 개최됐다.

상공부가 주최하고 전자공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전자전은

전시장 규모가 사상최대인 연건평 6,284평으로 KOEX본관 1층에는 산업기기와 가정용기기의 독립관이, 3층에는 산업용기기 및 가정용기기의 중소기업관과 부품소재관, 외국관으로 나누어 열렸다.

한편 이번 전자전 신제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포스켓을 개발한 한국정보진흥 김성구이사가 수상자로 결정되어 시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홍창물산, 삼익악기제조, 동아전자부품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이번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우수카탈로그 경진대회에서는 231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에 종합카탈로그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개별카탈로그 부문에는 경기시스템이 각각 수상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정보통신사업 종합계획 발표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李海旭)는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총1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통신공사가 최근 밝힌「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정보통신단말기 보급에 8천억원 ▲통신망 구성 및 보완에 2천7백억원 ▲각종 정보(DB)개발에 3천4백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통신공사는 2천년대 정보통신단말기 1천만대 보급의 첫단계로 올해 3백만대의 보급에 이어 오는 96년까지 총8천억원을 들여 기본형 단말기·교육용 PC·공중용 PC 등 단말기 322만대를 보급한다.

부문별로는 6천억원을 들여 기본형 단말기 3백만대를 구입, 저가로 임대하며, 국민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해 6백40억원을 들여 15만대의 PC를 구입, 보급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PC를 구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중전화와 유사한 공중용 PC 6만8천대를 1천3백60억원을 들여 구매,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통신공사는 이들 단말기의 보급으로 발생하게 될 방대한 통신량을 효과적으로 운용키 위해 통신망의 구성 및 보완에도 총1천9백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본지 50쪽 참조>.

총무처/「개인정보 규제법」 제정키로

정부는 오는 91년까지 행정망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유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산망에 입력할 개인정보의 범위 및 입력된 정보의 제공절차 등을 규제하는 「개인정보규제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곧 공청회에 부칠 이 법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완성될 행정전산망에 국민 개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혈액형, 본적 및 주소 등 일상적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되 전과기록, 질병기록 등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특정정보에 대해서는 입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비록 입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제형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토록 하되,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제한조항을 두도록 했으며,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하기 전 열람인에 대한 신분파악 등 정보의 사후관리에 규제장치를 두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73년 스웨덴이 서방선진국 중 제일 먼저 도입, 현재는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음향학회/디지털 신호처리 워크숍 개최

한국음향학회와 IEEE한국지회는 지난 10월 4일~7일 나흘간 자동화공업회관 3층회의실에서 「디지털 신호처리기의 구현 및 응용」에 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재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신호처리기의 최근 발전추세, 구조 및 성능 등을 구체적인 응용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실제적인 시스템 설계기법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했다.